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학폭 중대처분, 졸업 후 4년간 보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생부 '학폭 조치사항 관리란' 신설
"가해 기록 체계적으로 관리·보존"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 보존기간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 3월 1일~)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6·7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대상이다. 퇴학 처분 기록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구보존 대상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도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3월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보

존 기간을 2년 더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이뤄진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학

적 사항'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파주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연다

개최지 확정... 사업비 10억 확보

파주시가 인디뮤지션들의 최대축제인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로 확정됐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3일 동안 개최돼 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최지로 확정됐으며,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콘



파주시청 전경 /뉴스1

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국내외 인디뮤지션들과 '인디스팡스'의 공연이 펼쳐지며, 전시 등 관객 참여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AI 스타트업 스쿨 워드 서울' 첫 수업

서울시 AI 분야 초기·예비창업자 육성

서울시는 5일 구글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 초기·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AI 스타트업 스쿨 워드 서울' 첫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내달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5~7시,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에서 진행된다. 대학생과 예비·초기창업자를 포함해 총 6000명이 참여한다.

전 과정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참

가자에게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리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서울시의 행정이 디지털 대전환(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I) 시대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AI 활용력과 기술력에 도전과 성장의 '기업가 정신'을 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자원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교총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필요"

교권 11대 정책과제

교실 내 몰래 녹음근절 방안 등 제시
"올해 대국회·대정부 총력활동 전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된다"라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

고 있고, 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교체가 없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교육방식,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담임교체 요구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교체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가 핵심이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면허증 자진반납 어르신에 교통카드 지급

2만9310명 대상 10만원 혜택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시민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7일부

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2만명 모집... 18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자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신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6일 (수)

음력 : 1월 26일

수도권 날씨

2 ~ 10°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56 | 해질 / 18:31

연천 0/10, 동두천 1/11, 가평 0/9, 파주 1/10, 서울 2/10, 양평 2/10, 인천 2/9, 수원 3/10, 용인 3/10, 평택 2/10

백령도 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트럼프, '슈퍼화요일 전야' 노스다코타 경선도 승리 /사진 뉴스1
▲ 韓美,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 美대선 염두 초기 협상

▲ 중국,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에 국제적 감시 강화 요구
▲ 일본 1월 수산물 수출액 전년비 3% ↑ ...홍콩과 진주 거러 등 증가



▲ 中전인대 개막...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으로 제시 /사진 뉴스1
▲ 日언론 "韓강제징용 해법 발표 1년...기시다, 반성·사과 표현 피해" 지적